

‘조선협력·투자확대’ 공감대… 韓美 ‘실용동맹’ 신호탄

이재명-트럼프 경주서 두 번째 정상회담

실질 협력 방안 논의 집중
트럼프 무궁화대훈장 수훈
신라 천마총금관 모형 선물
조선산업 협력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양국 정상회담은 87분간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경제·외교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3분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뒤 경주로 이동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 앞에서 대기했다. 잠시 뒤 전통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등장한 ‘더 비스트(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가 멈추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회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뒤 두 달여 만에 재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앞으로 걸어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 차례 두드리며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방명록 서명, 공식환영식 등을 마친 양 정상은 대표단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진 친교 일

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관 모형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며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하셨고, 이제 다시 한국과 미국이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우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일 시: 2025년 11월19일(수) 오후2~5시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 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AWS 등 글로벌 기업 7곳, 5년간 韓에 13조 투자

APEC CEO 서밋 코리아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애플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관련기사 4면>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

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흘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살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 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애플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 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SK하이닉스, 사상 첫 ‘10조 클럽’ (3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11조 3834억원
작년 동기 대비 61.9% ↑

119% 늘었다. <관련기사 3면>

회사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 M3E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 번 넘어섰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 24조 4489억원, 영업이익 11조 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1.9%, 39.1% 증가했다. 순이익 12조 5975억원으로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韓줄뉴스



▲ 김도읍 “전문성 없고 무능”… 김윤덕 장관 “인신공격성 발언”
▲ 與 김현정 “청산가리 사건 무죄로 뒤집혀… 법왜곡죄 필요한 이유”

/사진 뉴시스

▲ 김윤덕 국토장관 “11월부터 주 2회 주택 공급점검 회의”
▲ 정청래 “이번 지선 가장 민주적 경선될 것… 의원 눈치 안 봐도 돼”

▲ “김현지 감싼 與, 정권 하수인 자처… 국정농단 다름없어”
▲ 국회 과방위원 “‘딸 축의금 파문’ 최민희 사퇴해야… 뇌물죄 수사하라”

민노총, 심야배송 반대… 소비자 불편·勞勞갈등까지 예고

택배노조, 0시~5시 배송제한 요구

유통업계 “이용자 2000만명 추정 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피해갈 것”

노조 “야간노동 의학적 위험성 ‘주간연속 2교대제’로 해결가능”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배송제한 요구로 새벽배송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조는 교대제를 통해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사들의 반발 가능성과 노동자성 문제까지 얹힌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계의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날 회의에선 심야 배송 및 주 7일 배송 개선 방안이



쿠팡 차량이 물류센터에 주차돼 있는 모습.

/뉴시스

논의됐다. 택배노조는 23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야간노동 의학적 검토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택배노조의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억지 주장이다”며 “심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야배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심야배송 이용하는 쿠팡와우 회원수는 지난 2020년 600만명을 시작으로 2023년 말 140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1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9월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66만명이다. 오아시스마켓, 쓱닷컴 이용자까지 합치면 심야배송 이용자는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심야배송에 익숙해져 있어 실현 가능할 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 불안감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 상황은 노조 리스크를 예고하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배송 문제뿐 아니라 수수료, 배송 조건 등 다양한 쟁점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단체행동의 과급력도 강해질 수 있다”며 “유통플랫폼 기업들은 선제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택배노조는 제한 시간이 0시부터 5시까지인 만큼, 교대제를 통해 배송물량을 처리하기에 배송 서비스 운영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조 한선범 정책국장은 “야간 노동에 의학적 위험성이 있기에 심야 시간대 노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처럼 심야 시간 운영을 멈추고 오전조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현실

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 배송 제한은 단순히 소비자 불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높은 단가를 위해 심야 노동을 감수하는 일부 기사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물류과 학기술회사가 지난 7월 택배기사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기사 업무여건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야간배송 기사 가운데 90.3%가 ‘야간배송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상하차 시간처럼 실제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순수한 배송 시간을 일정 시간 내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총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불분명한 만큼 직접 규제를 가하기보다, 쿠팡과 같은 운영 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해 일정한 노동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방산업계, 글로벌 잠수함 수주 쟁탈전 우위 다진다

2034년 시장규모 285억달러 전망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46조 규모 그리스 잠수함사업 참여
한화오션, 폴란드 오르카 수주 눈앞

글로벌 해양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잠수함 전력 확충에 나서자 국내 방산업계가 축적된 건조 기술과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요 해외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러시아의 북극해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각국이 해저 전략 자산 확보에 나서면서 잠수함 전력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글로벌 잠수함 시장은 연평균 5.1% 성장, 2025년 182억달러(약 25조원)에서 2034년 285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독일, 일본, 한국은 세계 3강으로 꼽힌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며 성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능과 운용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한화오션의 잠수함 기술력은 괄목할 수준으로 대한민국 해군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장호급 등 다수의 군용 잠수함 건조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 역시 세계 각국 해군에 1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인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그리스의 46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에 참여 중이다. 두 회사는 캐나다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최종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캐나다 사업은 잠수함 건조비만 약 200억달러(약 28조원), 유지·보수를 포함할 경우 60조원 규모로 납기와 품질 신뢰도를 중시하는 정부 요구에 따라 한국 조선사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화오션은 폴란드의 ‘오르카(Orka)’ 잠수함 사업 수주를 사실상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러시아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4년까지 최대 4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약 8조원(약 60억달러) 규모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조만간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내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서는 한화오션이 장보고-III(KSS-II I) 배치-II급 건조를 통해 확보한 설계 기술력과 납기 역량을 기반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를 갖췄다”며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협력하는 캐나다 사업은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이번 프로젝트들을 계기로 한국 조선·방산 기업의 잠수함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잠수함 사업은 한 번 수주하면 수십 년간 유지·보수가 이어지는 장기 산업으로 국가 외교력과 산업 역량이 결집되는 분야”라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될 경우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작년 기업경영 회복 전산업 매출 3.7% ↑

한은, 2024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이자 감당 못하는 취약기업도 늘어

지난해 국내 비금융 기업들의 경영성적표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요와 전기가스 요인이 외형과 수익성을 함께 끌어 올렸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되레 늘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3.7%, 총자산증가율은 7.0%로 반등했다. 수익성도 매출영업이익률 4.6%, 세전순이익률 4.3%로 개선됐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119.9%, 차입금의존도는 31.0%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4.6%)이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회복했다. 비제조업(-0.9%→-2.9%)은 운수·창고(해상운임 반등)와 도·소매(거저효과·원자재 거래 부진 완화)가 견인했다. 수익성 측면에선 전기가스의 이익률이 요금·원가 요인으로 뚜렷하게 회복됐다.

이자비용 내성은 ‘평균 개선·분포 취약’이 동시에 관측됐다. 이자보상비율은 191.1%→244.1%로 높아졌지만, 이자보상 100% 미만 기업 비중이 42.3%→42.8%로 확대됐다. 500% 이상 비중은 30.5%→29.4%로 소폭 낮아졌다. 평균 지표는 나아졌어도 하위 구간의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문상윤 한은 경제통계1국 기업통계팀장은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고 성장성의 경우 2023년의 거저효과가 있었다”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역대 최대는 반도체 중심으로 대기업을 수익성 개선에도 소규모 우량기업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아이폰17 OLED 패널 98.6% 삼성D·LGD서 공급

중국업체 BOE, 1.4% 공급 그쳐
‘품질문제’ 애플 기준 통과 못한듯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에 탑재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공급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국 BOE의 진입으로 한국 업체들의 물량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 우려가 제기됐으나 품질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아이폰17시리즈에 투입된 OLED 패널 물량은 8890만대로 이중 98% 이상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64.5%, LG디스플레이가 34.1%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1.4%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BOE가 품질 문제로 인해 애플에 대한 패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OE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을 앞세워 아이폰용 OLED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보안·감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올해 BOE의 애플향 패널 납품량이 당초 하향 조정된 전망치인 300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7시리즈 전체 물량의 중심을 맡고 LG디스플레이가 고가 모델을 담당하는 구조다. 특

히 LG디스플레이는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패널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기본형 모델(약 40달러)보다 프로맥스(60~70달러)의 디스플레이가 약 1.5배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BOE는 아이폰17의 OLED 패널 양산·공급을 위한 인증을 통과하며 향후 출시될 아이폰 시리즈의 공급망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 제기됐다. 초기 물량 확보는 어렵겠지만 애플이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차현정 기자 hyeon@

내년 HBM 생산·판매 확대…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

향후 5년간 HBM 수요 증가 전망
M15X팹 등 생산능력 빠르게 확대
“차별화 기술 바탕 고객수요 대응”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와 고대 역폭메모리(HBM)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5년간 HBM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HBM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급이 단시일 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 수요 대비 공급은 2027년까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HBM은 2023년부터 완판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현재 수익성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지난 9월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한 HBM4



29일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뉴시스

는 고객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업계 최고 속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회사는 이를 4분기부터 출하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D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고객 수요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최근 클린룸을 조기 오픈하고 장비 반입을 시작한 M15X를

통해 신규 생산능력(Capa)을 빠르게 확보하고 선단공정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2년 공사 끝에 M15X 팹을 조기 오픈하고 첫 장비반입을 시작했다”며 “내년부터 HBM 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메모리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



HBM4제품 이미지.

/SK하이닉스

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파 확대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역시 “향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으로, 회사는 시황에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용 메모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고른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양산 중인 최선단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풀 라인 업’ D램 제품군을 갖추고, 공급을 확대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낸드에서는 세계 최고층 321단 기반 TLC, QLC 제품의 공급을 늘려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김우현 부사장(CFO)은 “AI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며 전 제품 영역으로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며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노사정 TF’ 출범

‘퇴직연금 의무화’ 본격 추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등 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환점 될 것”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근절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차이가 큰 만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지난 2001년 퇴직연금제도 최초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발제와 자유 토론을 격주로 진행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올해 안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 속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체불의 위험이 크게 낮고, 적립액을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이후 개업한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퇴직금 제도 또한 인정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낮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연금

개비 IS Free~!

IRP 수수료 FREE

연금 전문가 상담 FREE

실시간! 적립식 ETF 거래도 자유롭게

KB증권

연금으로 미리 PICK 하셔야 가능합니다.

퇴직 후 고민을 뚝! 자유를 뚝! 개비증권

*KB증권 중개감사인 심사필 제2025-2118호(2025.08.19~2026.08.18)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RO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제1종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 설명서·권한투자계약 필수 *자산 가치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 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KB증권

李 “AI, 성장의 핵심”… 반도체·전기차·의료기기 투자 잇따라

맷 가먼 AWS 대표 만나 투자 확약
향후 5년간 외국인투자 90억弗 유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속도전
‘AI 고속도로’ 구축해 성장 엔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90억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만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50억달러(약 7조원)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달러(5조72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AI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AI 시민을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는 한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AWS와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스케어, 유미코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2조9132억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

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및 기술혁신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나 찬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대표는 “유미코아는 40년 전 한국에 처음 공장을 구축한 이후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뷔 트란 지멘스헬스케어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5000만 달러(약 717억3000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트럼프 “한국과 무역합의 임박… 中 시 주식과도 타결할 것”

최고경영자 CEO서밋 특별연설
한미 통상 강화·산업협력 확대
조선·반도체 등 기술동맹 부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할 것이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6분쯤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담당한 우리 정부의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내 사람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말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 왔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전쟁보다 낫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중 관세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일 한국에 오는데, 만나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흔히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문명을 구가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과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칩을 만들었고, 하루에 하나씩 배를 생산했지만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고 조선산업이 낙후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했는데, 한국에서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필리조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곳이다. 또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번영하면 동맹도 번영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번영하면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엔비디아, TSMC가 미국에서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제 미국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며 “빠른 인허가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서예진 기자 syj@

HBM·SDV·로보틱스… 삼성·현대차·SK, 엔비디아 ‘초협력’ 시동

30일 서울 코엑스서 재계 총수 회동
AI 반도체·SDV·로봇 협력 논의 전망
K-산업 중심 ‘AI 연합전선’ 시동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AI) 동맹을 강화한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GPU)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진행되는 자리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경주로 이동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와 젠슨 황의 만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고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SDV, 로보틱스 등 모

빌리티 설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난 회동에서 젠슨 황과 이 회장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채택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또 다음날 진행되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AI 생태계 기술에 집중하는 만큼 AI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李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해달라”

>> 1면 ‘이재명-트럼프…’서 계속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을 끝낸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났다.

/서예진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APEC 2025
KOREA

세 계 정 상 의 성 공 적 만 남 을 응 원 합 니 다
2025.10.31 - 2025.11.01



우리가 연결하는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내일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APEC 2025 KOREA 공식후원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동양생명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ABL생명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5 국정감사

‘10·15 부동산 대책’ 난타전… 野 “부동산 4인방 사퇴하라”

與野,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서 갈등
정책 당국자 겹투자 의혹 지적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도 ‘도마 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난타전으로 열렸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을 주관한 부동산 ‘4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적 요소라든가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광범위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위 ‘갭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책 당국자들은 정작 겹투자로 집을 마련하고,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종사산 중에 주택이 최대”라며 “사다리를 걸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겹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갭투자 등 논란이 불거진 ‘4인방’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용범 대

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주도하고 자기 집값 4억 올린 금감원장이나,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경매로, 이덕원 금융위원장 겹투자로, 적어도 이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

결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4인방에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까지 더해 ‘부동산 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대통령 그리고 정책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나”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토부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로 임명 났던 만에 물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되나. 이유를 알아보니 공보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

을 해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하는 게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 역시 “어떤 경과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의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차관) 원래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사적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창용 “올해 연간 성장률 1% 이상 될 가능성 커”

〈한국은행 총재〉

4분기 지켜봐야… 美 관세협상 변수
1% 넘더라도 구조개혁은 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본유출 우려
은행 중심·단계 도입 원칙 제시



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창용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며 3분기 실질 성장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올해 성장률에 대해 ‘1% 이상’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다.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동산, 노동시간 이슈를 한 번에 묶어 “속도보다 안정과 규칙”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출·환율 변동성, 주택공급의 질, 노동·임금·생산성의 균형을 제

다만 “4분기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고, 1%를 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치 개선을 인정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선 한층 직접적이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 같아, 저는 사실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이 나가는 게 잘 컨트롤되면 그

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 중심·단계 도입”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점도 짚었다. 외환·자본 흐름을 고려한 롤메이킹(준비자산·상환규칙·외환규제 연계) 없이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부동산 해법은 ‘공급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이 총재는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피스→주택 전환 카드를 제안했다. 그는

“AI 확산 등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다”는 구조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기·일관 패키지 접근을 주문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수요·공급·세제·인프라를 함께 보완하는 ‘규칙의 설계’가 핵심이란 취지다.

노동 이슈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의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 “장단점을 고려해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생산성·노동공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보완책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통화정책이 ‘물가·성장’만이 아니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요구받는 국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野, 최민희 ‘갑질의혹’ 공세… 與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시도

〈국회 과방위원장〉

신고서 제출했으나 접수 안 받아
野 과방위원, 최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이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과방위 행정실 직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다. 아울러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이른바 ‘3갑질’을 일삼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내세운 상설위원회로, 사회 전반의 갑질관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디어특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최민희 위원장의 팔걸이 포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된 ‘축의금 장사’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 개의 화환이 진열돼 있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권력형 화환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100만 원’, ‘900만 원 입금 완료’ 등 구체적 금액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대기업·방송사·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고액 축

의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호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준우 미디어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을 찾아가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서류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특위는 전했다.

한편, 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축의금 파문과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치권 대표, ‘10·29 추모’ 위해 한자리에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우원식, 정청래, 장동혁 등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대표들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추모행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억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정청래 민

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와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히 앓던 사고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다시는 국가 방임과 부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Emons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
14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8천여 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4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에몬스

www.emons.co.kr
instagram @emons_furniture
1800-9966



사망보험금 일시금 대신 월 지급… 노후 맞춤형 설계 진화

고령화시대 금융에서 답 찾다

② 신탁·종신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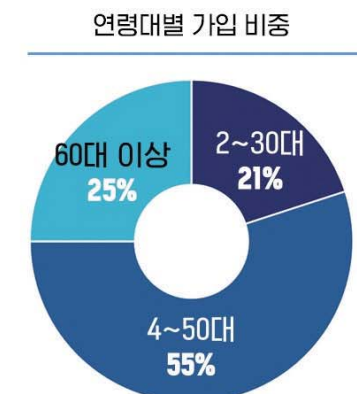
생활자금 설계 ‘보험금 신탁’ 확산
맞춤형 분할지급, 분쟁 예방 효과
종신보험에 연금·질병 옵션 결합

고령화시대에 맞춰 보험업계가 ‘신탁’과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 대신 월 지급·조건부 지급으로 바꾸고 종신보험에 연금전환·유동화·질병트리거를 엮는 흐름이 뚜렷하다. 핵심은 ‘신탁으로 지급 방식을, 종신으로 재원과 전환 옵션을 설계’하는 결합이다.

고령사회에선 상속·돌봄·연금흐름이 한 테이블에서 맞물린다. 보험업계가 꺼내는 카드는 ‘신탁’과 ‘종신보험’. 신탁은 ‘어떻게 줄지’, 종신은 ‘언제·얼마를 받을지’의 기술이다. 두 축을 결합하면 상속 분쟁을 줄이고 노후 현금흐름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상품·신탁은 회사·약관·수탁계약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계약 전 숫자와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생활자금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수탁기관이 받아 사전에 정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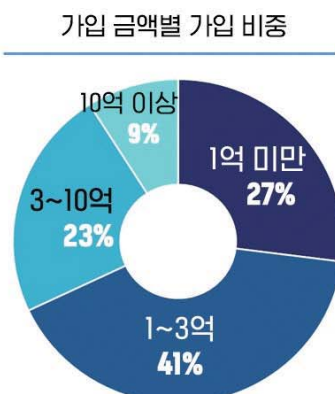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통계.

식으로 유가족에게 분할·조건부 지급하도록 설계한 구조다. 가족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한부모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시점과 금액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600건·2300억원, 월평균 260억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가입 연령은 40~50대가 절반 이상으로 수익자는 자녀 비중이 높다. 손자녀를 지정한 계약의 평균금액이 6억4000만원에 달하는 등 세대 간 이전 수요가 뚜렷하다.

KB라이프생명은 그룹 내 은행·증권과 연계한 4단계 프로세스(보험가입 상담→신탁상담→신탁계약→사후지급관리)를 제시했다. 고액 계약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VIP고객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선호한다. KB국민은행은 “신탁을 통해 유가족에게 분할·조건부 지급하도록 설계한 구조다. 가족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한부모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시점과 금액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총 392억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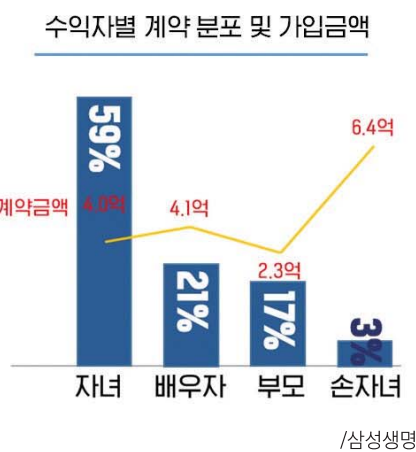
KB·삼성·ABL 등 신탁시장 공세
종신보험 연금·질병 트리거 결합
한화·KB·교보·신한 ‘하이브리드’
보장·유동성·전환성 3박자 강화

구 신탁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ABL생명은 최소 3000만원,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배우자·직계 한정, 보험계약대출 없음 등의 조건을 명시한다(세부는 회사·수탁기관별 상이). 한부모·장애 자녀 등 장기 생활자금 목적의 활용 사례도 전면에 올랐다.

◆ 보장+연금흐름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보험업계의 또다른 축은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다.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연금으로 전



/삼성생명

환해도 사망보장을 유지한다. 전환 시점 사망보험금(최초 가입금액의 3배 이상)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보험금’ 합계를 보증하는 구조다.

연금전환은 가입 후 18년 이후(20년납은 20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전환 후 초기 10년은 연금을 2배로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35세 남성·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월 보험료는 약 44만원 수준이다. 20년 후 55세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급 전인 초기 10년 동안은 매년 약 367만원 이후에는 약 18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 ‘더블업 역모기지 종신’은 사망보험금을 역모기지형 생활자금으로 유동화하고 일반암 진단 시 사망보험금·역모기지 지급액을 2배로 높였다. 40세·가입금액 1억원 기준, 65세에 10년형

2차 소비쿠폰 내일 마감… 카드사 ‘득’도 ‘실’도 없다

수수료 392억 벌었지만 비용 상쇄
단기차입금 이자·인프라비용 부담

제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사실상 별다른 실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으로 카드 결제 증가에 따라 수수료 이익을 봐도, 결제 인프라 및 단기차입금 이자 비용 등과 상쇄돼 ‘득’도 ‘실’도 없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31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가 총 13조9000억원을 투입해 1·2차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정책 사

업인 만큼, 신용카드사 수익 증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대부분 카드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7~9월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소비쿠폰 사용건수는 신한카드 1047만건, KB국민카드 5660만건, 현대카드 2542건, 삼성카드 2309만건, 우리카드 2024만건, 하나카드 1830만건, 롯데카드 984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총 392억원에

달했다. 수수료 수익은 신한카드가(약 119억 3000원), KB국민카드(85억원), 현대카드(49억 9000만원), 삼성카드(49억 3000만원), 하나카드(31억 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약 31억원 26억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수수료 수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라고 입을 모은다. 수수료 이익 만큼, 소비쿠폰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카드사들에게는) 덩치는 큰데 실익은 별로 없는 구조”라면서 “신판(신용판매)이 쌓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익은 별로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소비쿠폰 선지급을 위해 단기차입을 늘린 상황을 또 다른 비용으로 지목한다. 카드사들이 단기차입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용카드사들의 단기차입 금액은 올해 상반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단기차입 잔액 합계는 지난해 12월 말 2조 8943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 3152억원으로 잠시 줄더니 다시 6월 말 2조 6947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또 “단기차입의 경우 어찌 됐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인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7.3대 1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에 4000건 넘게 몰렸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에 들어선다. 풍무역 역세권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합리적 분양가와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렸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 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5일이며, 계약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원이며, 입주하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10·15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차기 회장선임 절차 공식 개시

우리금융지주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됐으며, 경영승계절차는 경영승계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기반으로 약 2개월여간 진행된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내외부 후보군을 상시 관리해 왔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다양한 평가방식과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

군 압축 및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강형 우리금융지주 임추위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임추위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증을 거쳐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 ‘KB나만의 적금’ 출시

고객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 선택

KB국민은행은 29일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나만의 적금은 고객이 직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만드는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구광모, 美·APEC 넘나든 현장경영 글로벌 무대에서 LG 미래 직접 챙긴다

美 플로리다서 트럼프 등 재계 교류
귀국 후 계열사 릴레이 보고회 주재
경주 APEC서 주요국 기업인과 회동
LG전자·생활건강, APEC 홍보 앞장
한국시리즈 현장서 선수단 직접 격려

구광모 LG 회장이 국내외를 넘나드는 초국경 일정을 소화하며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경영 현안, 스포츠 무대, 국제무대까지 오가며 그룹의 미래 방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29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재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골프 회동 행사에 한국 기업인 대표로 참석, 글로벌 인사들과 교류했다.

플로리다 일정 후 곧바로 귀국한 구 회장은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릴레이로 진행되는 LG그룹 사업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각 계열사의 내년도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구 회장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업보고회 일정속에서도 APEC 주요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써밋 개회식을 시작으로 APEC 일정에 돌입했다. 같은 날 정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연설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후 이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 있는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진 리셉션에도 참석,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오는 31일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APEC 갈라디너에 참석해 APEC 주요국가 정상 및 글로벌 경제인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20년만에 한국에서 치뤄지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했다. LG는 지난 9월 30일부터 경주 시내버스 70대에 APEC을 알리는 래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LG전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된 500평 규모의 에어돔 부스에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조성한 초대형 상들리에를 선보였다. 상들리에에는 77인치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가 조명을 등글게 감싼 형태

로 조성됐다. 이 외에도 모터·컴프레서 등 'AI 코어테크' 기술을 적용한 세탁기·냉장고의 연출 장면도 선보여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오는 3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헤리티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APEC에 참가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CEO들의 배우자들에게 K-뷰티의 정수를 선보였다.

구 회장은 지난 26일에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경기 현장에 구단주 자격으로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지난 2023년 29년 만의 LG트윈스 우승을 이끈 구 회장은 이날도 팬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 日 홋카이도에 HVAC 테스트 랩 구축 (냉난방공조)

극한 환경서 난방 성능 검증
제상·히트펌프 기술 강화

삼성전자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삼성 냉난방공조(HVAC) 테스트 랩'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 랩이 위치한 아사히카와는 내륙 분지로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 월 누적 적설량이 최대 127cm에 달하는 혹한·강설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아사히카와 지역의 극한 기후를 활용해 냉난방기의 난방 성능을 좌우하는 '제상 시스템'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솔루션'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상 시스템은 냉난방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에 쌓이는 성에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난방 운전 중 응축된 수분이 성에 형태로 열교환기에 응고되면 열교환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스스로 열교환기의 상태를 확인하

고 적절한 시점에 제상 시스템을 가동해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성에의 형태를 학습해 최적의 제상 운전 시점을 판단하는 제상 기술로 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 제품을 한국, 북미와 유럽 등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HVAC 테스트 랩에서 기술 연구와 실험, 검증을 진행해 더욱 효과적인 제상 성능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거용 히트펌프' 시장 공략을 위해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룰레오 공과대학, 로컬 시험소 등과 협업해 히트펌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HVAC 테스트 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 한층 강력한 성능을 내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 HVAC 테스트 랩은 삼성 일본연구소(SRJ), 홋카이도 대학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해 현지 기후와 실거주 환경을 반영한 HVAC 핵심 기술 고도화도 진행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AI 자율운항 기술로 해양시장 공략

美 해박AI와 해양무인체계 협력

한화가 미국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화는 29일 미국의 AI 자율운항 전문기업 해박AI와 해양무인체계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양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폴 브윈 해박AI 최고경영자(CEO)와 연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의 합정 건조 및 해양시스템 기술을 점검했다. 이어 하와이 앞바다에 대기 중이던 해박AI의 무인수상정(USV)을 거제 현장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기술 시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양사의 기술 결합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화는 이번 만남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필리핀 소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발을 내디딘 데 이어 이번 교류를 통해 자율운항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양사는 한화오션의 합정 건조역량과 한화시스템의 합정전투체계(CMS)·통합기관제어체계(ECS)·합정추진체계 상대기반진단체계(CBMS) 등 시스템 통합 기술에 해박AI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실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원관희 기자 wkh@

韓·獨, 일본서 수소차 기술 리더십 격돌

현대차·BMW, 日 모빌리티쇼 참가
현대차, 신형 넥쏘로 기술 과시
내년 상반기 일본 출시 예고

BMW, iX5 하이드로젠 공개
토요타 협업으로 기술 강화

현대자동차와 BMW가 '수입차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수소차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2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처음 참가해 신형 넥쏘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일본 시장에 신형 넥쏘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 기술 개발 헤리티지와 넥쏘를 일본 시장에 알리며 수소 기술 리더십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날 미디어 발표회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현대차의 수소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또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분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대차일본법인(HMJ)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왼쪽), 현대차 정유석 부사장이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소 존은 연료전지 스택과 함께 신형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관련 이력 및 현대차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소개하는 콘텐츠즈를 전시한다.

이번에 공개된 디올 뉴 넥쏘는 최고출력 150kW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돼 0~10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성을 갖췄으며,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국내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20km까지 주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V 존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 소개 및 아이오닉5의 글로벌 수상 내역을 소개하는 콘텐츠와

함께 일본 EV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의 차세대 차데모 1000V 충전기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현대차는 '인스터로이드 존'에는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를 함께 전시한다. 인스터로이드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에 다채로운 재미 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 모델로 인스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BMW도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노이어 클라세 모델 '뉴 iX3'과 수소 구동 기술을 탑재한 'iX5 하이드로젠' 등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비전을 제시했다.

뉴 iX3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BMW 파노라믹 iDrive'를 통해 운전자 중심의 디지털 경험을 구현했다. 또 6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과 원통형 셀 배터리, 새로운 전기 모터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주행 성능을 모두 개선했다. 아울러 BMW는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구동 시스템에 이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추가한 새로운 iX5 하이드로젠을 선보였다. 수소구동 기술은 BMW그룹이 토요타와 함께 개발 중인 3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양성운 기자 ysw@

제강업계, 전기요금 인상 직격탄 야간조업 등 수익성 개선 ‘구슬땀’

내달 전기요금 동절기 체계 전환
주요 원재료 철 스크랩 가격 불안
업계, 수익성 악화 가속화 우려

전기로 제강업계가 다시 한겨울을 맞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동절기 체계로 전환되면서 고환율·내수 부진·원료가 상승에 이은 또 한 번의 원가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전기료만 연간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제강사들에겐 이번 동절기 요금 적용이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1월부터 산업용 전력요금을 ‘동절기 요금’으로 전환한다. 한전은 계절별 전력 수요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데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겨울철(11~2월)은 단가가 가장 높다.

올해 기준 산업용 고압A·B구간의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봄·가을철 대비 kWh당 25~50원 인상된다. 초고압 송전망을 직접 인입해 자체 변전하는 대형 공장(고압B형)의 경우 중간부하(08~16시)는 118.2원에서 148.2원으로 약 25%, 최대부하(16~19시)는 226.9원에서 302.2원으로 33% 가까이 뛰는 데 약 400~450kWh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톤당 1만~2만 원대의 추가 전기료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번 동절기 요금 적용은 계절적 요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한 직원이 에코아크전기로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인에 따른 단기 조정이지만, 산업용 전력요금의 기본 단가 자체가 꾸준히 상승해 온 점이 이미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

내수 부진도 업황을 짓누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착공면적은 7931만㎡로 최근 10년 평균(1억1800만㎡)의 67%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엔저 영향으로 일본산 철근이 톤당 2만~3만 원가량 저렴하게 유입돼 내수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주원료인 철 스크랩 가격도 불안하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며 비공식 특별구매 단가가 톤당 40만 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다.

제강업계는 원가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국제강은 최대부하 시간을 피해 야간 중심 탄력 조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포항공장 지붕에 10MW급 태양광 설비

를 설치해 연간 약 15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심야 시간대의 저렴한 전기를 최대한 사용하는 한편 공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설비 대보수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제강은 야간 1교대 체제를 유지하며 월 단위로 생산 계획을 재조정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의 공장 가동률은 50% 안팎 수준이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스크랩 다음으로 큰 원가 항목으로 계절별 요금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에 반영된다”며 “야간조업이나 ESS로 단가를 낮춰도 가동률이 낮으면 톤당 체감 원가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S-EDP’ 기반 스마트 조선소 전환” (자동화 플랫폼)

삼성중공업 ‘Auto2Vision’
조선해양업계 최초 자동화 플랫폼 구축

삼성중공업이 설계·생산 자동화를 앞세워 ‘글로벌 톱 티어’ 조선해양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9일 삼성거제호텔에서 조선해양 업계 최초로 구축한 자동화 플랫폼 ‘S-EDP(SHI-Engineering Data Platform)’를 공개하고 업무 체계의 대대적 혁신을 알리는 ‘Auto2Vision’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uto2Vision은 Auto(설계·생산 자동화)에서 출발해 기술 진보를 미래 비전과 글로벌 리더십(Vision)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다.

S-EDP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자동 저장·공유하고 ▲웹 기반 동시 접근 ▲대내외 실시간 협업 ▲도면·문서·계산서 자동 작성 등을 통해 설계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도면 중심의 업무를 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1D), 도면·문서(2D), 3D 모델 간 정합성도 확보한다.

삼성중공업은 S-EDP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 자동화율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고 설계·구매·생산 전 부문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랜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가 29일 삼성거제호텔에서 열린 ‘Auto2Vision’ 행사에서 설계·생산자동화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포메이션을 구축해 스마트 오피스·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서두를 계획이다. 아울러 S-EDP를 국내외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맺은 해외 조선소에 판매하는 사업화도 추진한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는 “삼성중공업이 지향하는 스마트 조선소는 S-EDP를 통해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로보틱스 전환(RX) 등 ‘3X’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라며 “S-EDP가 스마트 조선소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중기 옴부즈만,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박차

최승재 옴부즈만, 올해 23회 간담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올해 전국에서 총 23회의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18회보다 더욱 늘어난 횟수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규제도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남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올해 20번째 간담회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서울, 11월6일



에는 울산에서 각각 중소기업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1월20일에는 인천·경기북부 지역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실생활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나 데이터 독점화, 접근 제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을 비롯해 산업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과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제 및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선업계, 3분기 실적 호조… 컨선 비중 압초

글로벌 고부가 선종 발주 감소
中, 컨선 저가 공세… 마진 하락세

국내 조선업계가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컨테이너선 중심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발주가 주춤한 가운데 중국 조선소의 저가 공세로 컨테이너선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2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2% 급증했다. 삼성중공업은 2381억원으로 99% 증가했으며 HD현대중공업도 4827억원으로 13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조선3사는 LNG 운반선 중심의

고부가 수익 구조가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발주 시장의 흐름이 변하면서 조선사들의 수주 전략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LNG 운반선 발주가 줄어들자 조선사들은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한 95척 중 59척을, 한화오션은 전체 32척 중 13척을 컨테이너선으로 채웠다.

컨테이너선 수주 확대는 단기적으로 조선소가 동물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NG 운반선은 단가와 이익률이 모두 높은 대표적 고부가 선종인 반면 컨테이너선은 중국 조선소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낮다. 중국 조선소는

한국 조선사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컨테이너선 점유율은 2022년 32%에서 올해 1~9월 25%로 낮아졌고 중국은 같은 기간 60%에서 71%로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산 선박의 자국 입항을 제한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국 조선사 수주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점유율이 높다”며 “한국산 선박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연구개발(R&D)과 품질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품질 회복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KG모빌리티, 3개 분기 연속흑자

3분기 매출 1조1889억, 영업이익 30억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1조1889억원,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362억원을 뺀 데서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105억원으로 466억원 적자였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3분기 판매는 2만9116대로 지난해 1만

기(2만9326대) 이후 6분기 만에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20.9% 증가했다. 누계 판매는 8만2388대로 작년 대비 증가세(2.2%)로 돌아섰다.

한편 KGM은 지난달 글로벌 론칭을 시작한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국가별 출시가 본격화하면서 판매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교원그룹, 내달 12일까지 ‘교감페’ 진행

〈교원 감사 페스타〉

창립 40주년 맞아 대규모 할인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고객 사은 할인 행사 ‘교원 감사 페스타(교감페)’를 내달 12일까지 보름간 진행한다.

29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 감사 나눔’에 이은 두 번째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사회,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교원헬스케어는 멀티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7 등 인기 건강기능식품 3종을 각 49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40주년 기념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호텔사업 부문인 더스위트호텔(제주·남원)과 키움에서는 주중 숙박권을 정상가 대비 최대 83% 할인된 4만원에 선보인다.

교원투어는 선착순 400명에게 패키지 여행상품 최대 7%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며, 무료 항공권 추첨 및 최저가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한 ‘해피 포티(40th) 파티’ 이벤트를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교원그룹 통합 온라인몰 ‘K 멤버스’ 또는 각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2025 더뮤지션 THE MUSICIAN



The Legendary Stage of Six Guitar Masters

타미킴 찰리정 이성렬 이근형 이선정 샘리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가빈아트홀

◆ 공연 실황과 준비 과정을 그대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더 뮤지션> 제작 중** ◆

김영섭 KT 대표이사, 국정감사 세 번째 소환

전 고객 위약금 면제·유심교체 촉구

KT, 소액결제·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무료데이터, 통신요금 지원 등 나서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엔 선 그어
시민단체 “기본 의무 실패” 반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소환됐다. 이날 KT는 피해자 보상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는 “근본 대책 없는 미봉책”이라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KT는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혹은 단말기 교체비 지원을 발표했다. 단말 교체를 원할 경우 KT 신규 단말 구매 시 약정할인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며, 통신요금 할인은 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회사는 대상자들에게 다음 주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KT는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KT 안전 안심 보험’을 제공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 선 김 대표 또한 위약금 면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훈기 더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다. 번호이동하는 모든 가입자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으로 한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KT의 조치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침해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기본 의무 실패”라며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

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KT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81%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와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과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이 “미국의 클라우드액트(Cloud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KT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MS와 계약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리전(지역)에 있다”면서 “망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고객이 갖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6번의 직원 사망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려됐다고 말했는데 결국 연쇄적인 사망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토털영업TF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AI 학습과 추론에 활용돼, 네트워크 품질을 세밀하게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FILM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여러 제조사의 장비가 혼합된 환경에서도 일관된 형식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K텔레콤은 2024년 2월 FILM을 O-RAN 얼라이언스에 신규 표준화 피쳐로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승인받았다. 이후 표준화 책임사로 참여해 13개 글로벌 통신사 및 장비 제조사와 함께 활용 사례와 기술 요구사항을 정리한 기술문서를 완성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가 O-RAN에서 피쳐 단위의 표준화를 주도한 첫 사례다.

/김서현 기자



엔씨소프트 조감도.

/엔씨소프트

게임업계, 신작 라인업 등 출품작 공개에 기대감 ‘쑥’

지스타 2025

내달 13~16일 부산 벡스코서 열려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시연부스 운영
넷마블·크래프톤·웹젠 등도 출격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5’ 개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 라인업과 현장 프로그램을 속속 공개하며 열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29일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스타 2025’는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는 5종의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고, 공식 부스 조감도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엔씨소프트는 내달 19일 출시 예정인 ‘아이온2’ 시연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이 PC와 모바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도 파괴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캠페인 모드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하며, 차세대 타임 서바이벌 슈터 ‘타임 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이 함께 출품된다. 미공개 신작 1종은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일곱 개의 대

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 L: enchant’ 등 5종을 선보인다. 총 112부스, 145개 시연대로 구성된 현장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동 시연, 개발자 토크쇼, 코스프레 쇼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서새봄·옥냥이·따호니 등 인기 스트리머가 참여하는 타임어택 챌린지를 마련해 팬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팻월드 모바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일본 포켓몬의 히트작 ‘팻월드’ IP를 기반으로 펫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이 게임은 ‘팻’ 수집·육성, 건축·생존 요소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배틀그라운드 IP 체험공간 ‘카페 펫지’와 각종 미니게임·이벤트가 운영된다.

웹젠은 전략 디펜스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트즈’를 공개하고, 자체 개발작 ‘테르비스’ 및 ‘웹젠 프렌즈’ IP를 활용한 가족형 이벤트 존을 마련한다.

네오위즈는 퍼블리싱작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을 단독 부스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관람객은 현장 체험 후 캔벤티, 포토카드 등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MSI 게이밍 모니터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지스타 2025’는 대형 신작과 글로벌 IP가 대거 출품되는 만큼, 역대 최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오픈랜 ‘FILM’ 기술 표준화 주도

〈무선망 데이터 수집 고도화〉

AI 네트워크 품질 분석 고도화

SK텔레콤은 글로벌 오픈랜(Open RAN) 표준화 기구인 O-RAN 얼라이언스(O-RAN Alliance)에서 무선망 데이터 수집 고도화 기술 ‘FILM’의 기술 문서를 새롭게 발간하며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O-RAN 얼라이언스는 2018년 설립된 글로벌 개방형 무선접속망 표준화 단체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엔비디아 등 전 세계 300여 통신 장비 제조사와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

콤은 회원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O-RAN 표준 회의를 주최했다.

SK텔레콤이 발간한 FILM 기술 문서는 AI가 네트워크 품질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품질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전체 단말의 평균 성능을 기반으로 분석했으나, FILM은 신호 세기나 위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수집해 보다 정확한 품질 진단이 가능하다.

SKT, AI로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한다

‘FAME’ 출시… 신한카드에 첫 공급

SK텔레콤은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AI 보안 솔루션 ‘FAM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FAME은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플랫폼으로, 위치·전화·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부정 거래 등 금융 사기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권·공공기관·기업 고객은 FAME을 기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동해 고객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첫도입 기관인 신한카드는 FAME을 통해 통신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 고객 보호 수준을 높인다. /김서현 기자



박준 SKT AI인텔리전스 사업본부장(왼쪽)과 조문일 신한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이 FAME 공급 계약서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모습. SKT

LG U+-경희대, 네트워크 분석 AI 모델 개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발생지역 특성 자동 판별

LG유플러스는 경희대학교와 협력해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가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람이 직접 분석하던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의 지역별 특성을 AI가 자동으로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산학협력을 통해 별도 현장 조사나 장시간의 테스트 없이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트래픽 데이터가 주거단지, 오피스 지역, 상업지구 등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했다.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정확도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발된 AI 모델은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입력하면 발생 지역의 유형, 실내·외 트래픽 비중, 시간대별 이용 패턴 등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구조로, 특징이 명확한 지역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 AI 모델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망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해 장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미리 증설하고, 수요가 줄어든 지역은 일부 축소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고려해 장비 출력을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새벽이나 오피스 지역의 야간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수나 홍대 같은 상권의 주말에는 출력량을 높이는 식이다.

/김서현 기자

좀비기업 늘고 체질 악화… ‘불장’ 지속 관건은 구조개혁

코스피 4000 시대

㉓ K-증시, 부실 그림자

부실기업 확산 속 산업 활력 둔화
중간하리 붕괴 성장 사다리 흔들
밸류업 외치지만 체질개선은 더딤
좀비기업 정리·혁신투자 등 필요

“요즘 주식 시장은 매일 계단 날처럼 급등하는데, 이런 잔치에 현금 비중이 높아져 벌지도 못하고... 현금거지되는 것 같아서 우울해요.” (개미 투자자 김모씨)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온갖 신기록을 쏟아내자,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일 불어난 계좌를 캡처해서 수익 인증샷으로 돌리고, 회사 동료 모두에게 인심쓰듯 커피 기프트콘을 돌리는 일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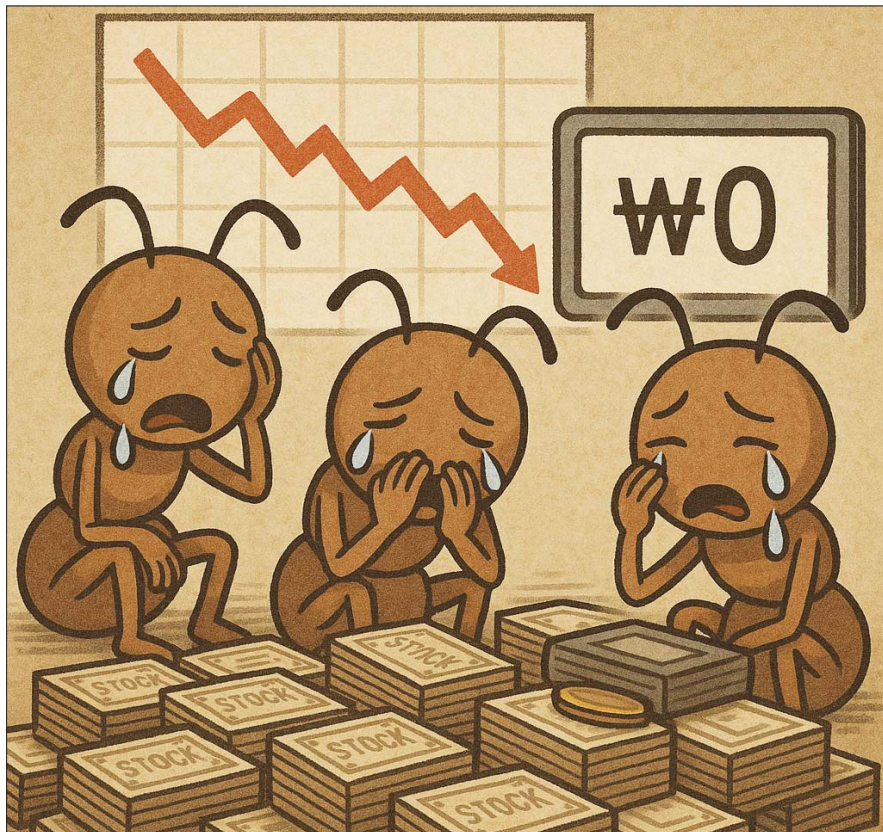
하지만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른 것 같은데,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매도했는데 주가는 보란 듯 더 올라버려 ‘닭 쫓는 개’의 신세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역대급 초조할 장세에서 계좌에 주식이 가득차 있는 ‘주식뽕뽕’ 개미들이 계속웃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수 흐름만 보면 전형적인 ‘불장’ (강세장)이지만,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평가한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체질 개선에 답이 있다고 얘기한다.

◆사다리가 무너진 증시…한계기업 퇴출 과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하락 종목 투자한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한국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 17.1%까지 치솟았다.

상장사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 19.5%(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중간하리’ 기업도 줄고 있다. 종업원 50~299명 규모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지속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 각종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중간하리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지금 금융시장은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의 선별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글로벌 통상 질서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기업들의 욕망이 가라지기를 시작하면 동학개미들이 좀비기업(부실 기업)의 희생양이 될까봐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

금융 전문가들도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호섭 자본시장연

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증시에 부실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장폐지 기준을 더욱 강화해 좀비기업들을 속아내야 국내 증시의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평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자원 몫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대규모 투자가 제약되고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와 기업, 구조적 개혁이 필요

환경협에 따르면, 만 20~29세 청년층의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60대 이상(5.2%), 30대(3.1%), 50대(2.2%), 40대(2.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심지어 청년층의 실질소득 증가세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과거 5년(2014~2019년) 연평균 2.6%였던 증가율이 최근 5년(2019~2024년)에는 1.1%로 반토막이 났다.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면 개별 주가나 주식시장이 좋을 리 없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이자, 불변의 진리는 역시 ‘펀더멘탈’이라고 했다.

김정섭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로서의 숫자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전제로 한 국가 성장의 비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을 산업 체질 변화에서 답을 찾는다. 주가 상승의 본질적 동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듯, 숨겨

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가 지속하는 산업 생태계야말로 기업가치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 제조업과 AI의 융합 등 질적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증시 체질 개선의 핵심 변수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 논문에서 거버넌스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PBR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성공을 위해서 주주 환원보다는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 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구조가 설비투자 위주의 오래된 업력을 가진 가치주 중심에서 무형자산 위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성장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회생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과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도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넘어 생산성과 혁신성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금이 저점”… 금값 급락에도 ETF ‘쭈뼌’ 엔비디아 시총 5조달러 눈앞… ‘AI 거품론 일축’

금값 4000달러 붕괴 미중 협상 여파
금ETF 자금 2029억 개인 매수 확산
단기 조정에도 금값 상승 기대 여전

국제 금값 하락에도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일제히 하락세다. 20일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로 17.68% 떨어졌으며, ACE KRX금현물(-16.83%), TIGER KRX금현물(-16.25%), SOL 국제금(-8.14%) 등이 모두 내렸다.

하지만 이번 금값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ACE KRX금현물에 유입된 자금은 1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자금 유입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88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TIGER KRX금현물도 219억원 사들였다.

시장에서 이번 단기 조정 이후 금값이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점에 골드바가 놓여있다. /뉴스시스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값 반등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은 가격 급락에도 금과 은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에 따른 실질금리 하

락,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전략으로 지정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콜라스 프래펠 호주 ABC 정련소(ABC Refinery) 글로벌 기관시장 총괄도 “현재는 명백한 조정 국면이며, 조정은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면서도 “금값이 온스당 3700달러까지 하락한 뒤 새 고점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금 시장이 과열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는 설명이다.

존 리드 세계금협회(WGC) 시장전략가 역시 “지금의 하락은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며 “온스당 3500달러로 내려가는 것도 ‘건전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AI칩 수요 폭발·주가 급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수요를 강조하며 ‘AI 거품론’을 일축시켰다. 이날 엔비디아는 5%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조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4.98% 상승한 201.03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 때 203.1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8850억달러 수준이다.

주가 상승을 자극한 것은 황 CEO의 인공지능(AI) 낙관론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워싱턴DC에서 개발자행사(GTC)를 열고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등을 밝혔다.

엔비디아는 우버, 팔란티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 여러 기술기업과의 협업 계획을 발표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구축 중인 AI 파트너십을 부각했다. 자사의 기술이 AI 열풍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다해 양자 컴퓨터와 자사의 AI 칩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황 CEO는 “AI 모델이 이제 충분히 강력해졌고 고객들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과 루빈과 관련해 5000억달러 규모의 주문이 확보돼 있다”며 이들이 전례 없는 판매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애플도 최초로 장중 시총 4조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세 번째다.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3조9900억달러에 마감했다. MS도 2%대 강세를 보였다. MS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약 4조400억달러로, 종가 기준 4조달러는 넘긴 것은 최하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161.78포인트(0.34%) 오른 4만 7706.37에 거래를 마쳤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73포인트(0.23%) 오른 6890.89에 마감했다.

/신하은 기자

수입산 맞선 ‘고급화’ 전략 통했다 한우 품질, 30여년 간 ‘고속성장’

농진청, 1990년대 이후 데이터분석
한우 평균체중 증가, 마블링 개선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가차원 품질 중심 고급화 확립

한우의 품질이 지난 30년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맺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 이후 들어온 다량의 중저가 외국산에 맞서, 고급화 전략으로 선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농촌진흥청이 29일 설명했다.

농진청은 “1990년대~2020년대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우의 성장 성적과 육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6개월령 한우의 체중은 평균 144.7kg에서 157.7kg으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증가(31.4%)했다.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도 3.62에서 5.10으로 개선됐다. 특히 16개월령 이후 소에서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와 사양 기술의 정밀화가 품질 고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우 산업이 고급육 중심 체계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다.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 대신 품질 중심의 고급화 전략으로 방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한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향을 틀었다. 이후 국가차원의 개량 정책과 연구개발이 집중되면서 고급육 생산·유통 체계가 확립됐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한우는 오늘날 ‘K-상표’의 한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이르렀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품질 혁신을 이끌기 위해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3년부터 한우 개체의 형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전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고, 90년대 말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체계로 전환했다. 2017년에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수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를 5~11%포인트(p) 높였다.

2020년부터는 농가 암소 대상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해 혈통 정보 기반일 때 40%였던 농가 보

유 암소의 유전능력 예측정확도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60% 정도로 20%p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암소 선발 효율과 출하 수익이 함께 높아져 연간 경제적 효과는 113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한우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육성기에는 양질의 건초를, 비육기에는 볶짚 위주로 급여해 영양 균형과 사료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이러한 관리 기준은 2022년 개정된 가축사양표준에도 반영돼 농가의 사양설계와 사료 배합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진청은 향후 ▲사료 효율과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유전개량 및 사양기술 고도화 ▲온실가스 저감 ▲고온기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진형 부장은 “한우의 고급화는 지난 30여년간 축산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연구와 데이터가 실제 한우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물 고급화는 물론, 비육 기간 단축,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무보, 파나마 메트로 하저터널 건설 지원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참여
총 6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하저터널 건설’ 사업에 6억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나마 수도권 파나마 시티와 서부 아라이한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11개 역사와 모노레일, 하저터널 건설이 포함된 파나마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사업이다. 무보는 이번 지원

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수출 건설사가 공사 이행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부채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국내 건설사는 무보 보험을 활용해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미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보 관계자는 “유동화 방식 금융지원은 2021년 파나마 메트로 1차 금융지원 때 처음 도입했었다”며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금융 경쟁력이 이번 우리기업의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 설명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협력 중소기업 14개사와 함께 약 3000만달러 규모의 기자재(공조설비·발전기·케도빔 등)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및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고객 맞춤형 금융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 성과”라며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Invest)과의 협력도 확대해 중남미 수주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구 두류동 등 상습침수 17곳 집중관리

기후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두류동, 중남 서천군 장항읍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

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지정된 17곳에 대하여 총 83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 84km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1조 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정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8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지원 소비쿠폰 결제 가능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소비쿠폰 효과’ 유통업체 매출 7.7% ↑

산업부, 9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온·오프라인 23개사 매출 16.4조 ↑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 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

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60개 시정요청

공정위, 금융거래 약관 전수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

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사우디서 192만 달러 수출협약

‘리야드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농업박람회(1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 행사장 내에 한국관을 운영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이 농업박람회는 사우디 최대 규모 농업박람회로, 중동권 농업 교류·거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농어촌공사는 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조성하고 홍보에 나섰다.

특히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이



농어촌공사가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부터 국내기업과 중동권 구매기업을 연결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지에서 274건(602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12건(192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 + 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경북도, APEC 계기로 사상 최대 ‘코리아 세일즈’ 나선다

‘K-테크 쇼케이스’서 AI·XR 등 韓 산업경쟁력 전 세계에 알려 경제전시장서 지역기업 기술 선배 해외기업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전시장을 본격 가동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테크 쇼케이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신기술 전시를 둘러봤다.

‘K-테크 쇼케이스’는 31일까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메타(Meta) 등 국내의 주요 기업이 참가해 기술력과 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모빌리티·로보틱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메타버스·확장현실(XR)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테크 쇼케이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신기술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있다. 또 삼성, LG, SK, 현대차를 비롯해 5개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발표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경제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이차전자·모빌리티, 반도체, 조선해양, 화장품·바이오, 웹툰·드라마·캐릭터) ▲지역기업관(55개 기업) ▲K-경

북푸드 홍보관 ▲5韓(한복·한식·한옥·한글·한지) 문화체험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첨단미래산업관에는 도내 30개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력 중심의 강소기업 면모를 선보인다. 전시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 대표단, CEO Summit 참가 기업인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경북도는 이번 APEC을 역대 최대

세일즈무대로 삼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설명회와 상담회,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산업을 세계 정상과 글로벌 CEO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경북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사상 최대의 세일즈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컨설팅이 공동 분석한 결과, 올해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7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단기 직접 효과는 3조 3000억원,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내일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부산시는 25년 만에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오는 31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후 5시 개식통고와 가수단 입장으로 시작된다. 각 시도 선수단은 한국 최초의 노래방인 부산로얄전자오락실을 재현한 무대를 통해 입장하며 사전 신청곡과 함께 불굴의 투혼을 표현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애국가 제창, 선수 및 심판단 선서, 개회 선언, 환영사, 개회사, 기념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동시

전 세계 인문학자 한자리에

안동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인문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 공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간의 존엄, 공존의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다.

2011년부터 격년으로 열려 올해로 8회를 맞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문학 국제 포럼으로, 올해는 20여 개국의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연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주시

‘AI·XR 골목영화관’ 운영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황리단길 일원과 황남고분군 등 10 곳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5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공모전’ 수상작과 우수작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편영화, 창작영상,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APEC 특별부문’을 신설, APEC과 경주, 신라를 주제로 한 창의적 영상물이 상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대구시

오늘 ‘대구아트스퀘어’ 개막

대구시는 지역 최대 미술축제인 ‘2025 대구아트스퀘어’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DIAF에는 6개국 108개 화랑이 30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현대미술 작품을 통한 예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전시장에서 현대무용단인 뿔마루무용단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색다른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술프로젝트에는 청년 작가 14명이 참여해 ‘청년미술=미래미술’을 주제로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북구 도심 교통망 개선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 착공

우현동~창포동 마장지 잇는
1단계 구간 착공… 31개월 공사

포항 북구 도심의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호선) 개설 공사 착공식을 지난 28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북구권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도심 3축 가로망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7.1km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번 착공하는 1단계 구간은 우현동 국도 7호선에서 창포동 마장지를 잇는 1.52km(폭 20m, 4차로) 구간이다.

시는 총사업비 569억원을 투입해 약

31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향후 2·3단계 구간까지 완공되면 장성·지곡·우현·창포를 하나의 순환축으로 연결하는 ‘도심 교통 순환망’이 완성된다.

도로가 개통되면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주거·산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북구 생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주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착공식에서 “이번 도로는 북구 도시구조를 순환형으로 재편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교통축”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신안군, ‘태평염전’ 문화재 등록 말소 신청

강제노동 논란에 보존 가치 없어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를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염전의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 정부의 태평염전 수입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상실했다는게 등록 말소 신청의 이유로 전해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WRO :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태평염전 측은 “태평염전이 일제강점기 이후의 염업 발달을 상징하는 산업유산으로 등록됐으나 강제노동 사건으로 상징성과 사회적 의미가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천일염 산업을 유지·보존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판단돼 지정해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청도군, 外人 계절근로자 모범사례 주목

356명 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해소

청도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2023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했다.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통역 인력 배치, 월 1회 이상 근로현장 점검 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25년 현재 청도군은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 중이며, 이 중 필리핀 84명, 라오스 58명 등 140여 명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현지 면접 선발제, 정기 현장 상담, 통역 지원 체계를 운영해 근로자와 고용농가 간의 신뢰를 높였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안정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청도군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무안군, 이상기온에 낙지축제 비상

성수기에도 고수온에 어획량 줄어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제철을 맞은 낙지가 잡히지 않으면서 낙지축제를 앞둔 전남 무안군에 비상이 걸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11월 1~2일 무안을 뱃나지 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군민가요제와 인기 가수 공연, 어린이 즉석 낙지잡기, 낙지 경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지만 낙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줄어 ‘낙지 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안지역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이어진 무더위로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낙지 치어 폐사가 발생,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낙지잡이 어민은 “여름철 높은

수온으로 6~7월 낙지 치어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업에 나서도 기름값과 미끼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며칠째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출어가 줄면서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세발낙지 한 마리 도매가는 1만 원, 중간 크기는 2만 원을 웃돌며, 대낙지는 잡히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상인들에게 적정 가격 유지와 바가지 오해 방지를 위해 가격 사전 공지를 유도하고 있다.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불친절과 바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낙지 외에도 전어, 새우 등 제철 수산물을 준비해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운동한 이사 복귀 불발... 콜마홀딩스, 윤상현 독주체제 ‘썰기’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열려

운동한·김치봉·김병목 총 3명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 ‘부결’

운동한 회장, 장남 윤상현 상대
주식반환소송 ‘불씨’ 아직 남아

콜마그룹 창업주인 오너 1세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장남인 오너 2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한 회장의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 복귀가 불발됐다. 운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과 대립하며 콜마홀딩스 이사회 재편을 추진했으나 윤상현 체제가 계속되게 됐다.

29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이날 세종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총 3건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을 다뤘고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됐다.

이번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은 운동한 회장의 주주제안으로 진행됐고 신규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후보에는 운동한 회장, 김치봉 전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김병목 전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운동한 회장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각자 대표 등을 포함한 총 8인의 사내이사과 총 2인의 사외이사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

추천했으나 이중 7인의 후보가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 25%에 크게 미달했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운동한 회장 일가와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라며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이다.

실제로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윤상현 부회

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해당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 가족간 갈등과 연관된 사안인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룹 주요 경영진으로서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임시 주총 결과는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운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부자(父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한 차례 다툼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으며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다. 그 결과,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경영 체제 전환을 이뤄냈다. 특히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상현·이승화·윤여원 3인 각자 대

표 체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윤 회장은 장녀 윤여원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8일 윤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콜마비엔에이치 지분 전량을 윤여원 대표에게 증여했다. 증여 규모는 보통주 69만2418주로 지분율은 2.53%다. 향후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엔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늘어나게 된다. 취득 단가는 1만4220원, 총 거래금액은 약 98억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주식 반환 소송은 남아 있다. 이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까지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U가 일본형 역직구 택배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반값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CU

CU

‘일본 반값택배’ 개시 국내 최저가격 수준

편의점 CU가 업계 최초로 국내 최저 가격 수준의 ‘일본 반값택배’ 서비스를 다음 달 3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물류 스타트업과 손잡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K-뷰티·패션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일본형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 택배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역직구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6100여만 건을 기록했다. 이 중 약 55%가 일본행이었다. 이에 CU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일본 전역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CU 일본 반값택배는 일반 택배처럼 점포에서 바로 접수하거나 CU POST 앱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배송 기간은 통관 이슈가 없을 경우 접수일 제외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운임은 무게별(500g~20kg)로 책정되며 국내 최저 수준으로, 동일 중량 해외 배송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하다. CU는 물류 스타트업 STL과의 협업을 통해 마진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G마켓

설운도 등 모델 4명 ‘빅스마일데이’ 홍보

G마켓이 설운도, 김종서, 환희, 민경훈 등 4명의 가수를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이 다음 달 1일부터 11일간 진행하는 빅스마일데이는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고 캠페인 역시 트로트, 록, R&B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들을 모델로 기용해 유쾌하고 중독성 있는 영상을 선보인다. 각 아티스트의 대표곡을 가전·디지털·패션·식품 등 빅스마일데이 대표 카테고리와 연결해 재해석했으며, 김경호와 박완규가 특별 출연해 재미를 더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유튜브 공개 직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은 본 행사를 앞두고 이날 티저 페이지를 열어 할인 혜택과 특가 정보를 미리 공개했다. 티저 페이지에서는 애플워치SE2, 다이슨 에어랩,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등 매일 새로운 특가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뉴욕·하노이·서울 등에서 ‘빼빼로 데이’ 글로벌 홍보

롯데월드, 통합 마케팅 캠페인 ‘스트레이 키즈’ 등장 공감대 형성

롯데월드푸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하노이, 서울 등 국내외 핵심 거점 도시에서 글로벌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부터 오프라인 행사까지 다양한 현장을 통해 빼빼로 및 빼빼로데이의 인지도를 강화한다.

올해 빼빼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Show your love with PEPPER(빼빼로로 사랑을 나누세요)’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캠페인의 키 비주얼(Key Visual)에는 빼빼로 글로벌 앰배서더인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등장해 젊고 에너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전 세계 팬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타임스퀘어 ‘TSX 브로드웨이(TSX Broadway)’ 빌딩의 초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광고를 진행한다. 이곳은 하루 약 45만 명이 오가는 핵심 구간으로, 롯데월드푸드는 올해로 3년째 타임스퀘어에 빼빼로 광고 캠페인을 송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빼빼로데이 당일에는 타임스퀘어의 중심부인 ‘파더 더피 스퀘어(Fathe



뉴욕 타임스퀘어 ‘TSX 브로드웨이’ 빌딩에서 송출되고 있는 빼빼로데이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영상. /롯데월드푸드

r Duffy Square)’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펼친다. 빼빼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 이벤트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며, 케이팝 댄스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도 계획됐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중심가에 위치한 ‘The Twins’ 빌딩과 한인타운 인근에서 다음달 24일까지 디지털 옥외 광고가 진행된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거점,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현장 체험형 이벤트를 선보인다.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1층 메인 아트리움에서 포토존, 게임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대형 전광판 4곳과 성수역, 강남역 등 55개 주요 지하철역에서 옥외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식 ‘필동가’ 등 지역특화 김치 3종 출시

CJ제일제당, 포장김치 시장 공략

CJ제일제당이 온라인 포장김치 시장 성장에 따라 지역별 김치 맛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김치’ 3종을 출시하며 포장김치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서울식 ‘필동가’ 김치, 경상도식 ‘안동한’ 김치, 전라도식 ‘해남제’ 김치 등 ‘지역특화 김치’ 3종을 네이버 전용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지역특화 김치’ 3종은 각 지역의 김치 맛을 세밀하게 연구해 최상의 조화를 찾아 그대로 구현, 비비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한 포기 배추김치다. 김치는 특히 맛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품목으로, 최

근 소비자들이 제각기 선호하는 김치 맛을 찾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추천받고 경험하고 정착하는 소위 ‘김치 유목민’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적극 반영됐다.

서울식 ‘필동가’ 김치는 도시적 감각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김치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기본으로 황태육수를 더해 시원한 풍미를 구현했다. 경상도식 ‘안동한’ 김치는 청양초를 넣어 칼칼함을 살리고 멸치액젓, 소고기 양지육수 등으로 양념의 진하고 깊은 맛을 더욱 끌어올렸다. 전라도식 ‘해남제’ 김치는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배추와 넉넉하게 넣은 조기젓, 멸치젓 등 다채로운 재료를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오늘부터 ‘BLACK 홈플러스’

신선식품·생필품 등 최대 80%

홈플러스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을 첫 대규모 슈퍼세일 ‘BLACK 홈플러스’ 행사를 개최한다. 마트·온라인·익스프레스·몰 전 채널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식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해 선보인다.

행사 첫 주(10월 30일~11월 5일)에는 ‘홈플러스런’을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달 30일부터 나흘간

미국산 옥목돼 삼겹살·복심과 당당 3990 옛날통닭을 한정 수량 특가로 내놓으며, 휘라 노르웨이 생연어 횡감용 대용량팩은 멤버십 회원 대상 50% 할인한다.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 31일부터 사흘간 농협안심한우 1등급 암소 등심은 멤버십 회원 대상 반값에 내세운다.

제철 신선 먹거리도 최대 반값 혜택으로 준비했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산 보맥돼 삼겹살·복심과 한돈 브랜드 암돼지 삼겹살·복심을 5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유통업계, 스마트 컨슈머 발 맞춘다… 프리미엄 전략 강화

BBQ 네 가지 치즈 조화 ‘뽕치킹’
썸브웨이 ‘토시비프 샌드위치’ 신메뉴
피자에땅 홍게 등 메뉴 고급화 나서
이마트24 프리미엄 버거 2종 출시

식품업계가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의 눈높이에 맞춰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원재료와 성분, 영양 밸런스, 지속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각 브랜드가 한층 고급화된 메뉴를 통해 차별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맛을 넘어 건강과 미식 경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이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썸브웨이는 소고기 회귀 부위인 토시살을 활용한 ‘토시비프 샌드위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쫄깃한 식감과 진한 육향이 특징으로, 썸브웨이 특제 페퍼시즈닝을 더해 풍미를 극대화했다. 함께 출시된 ‘토시비프 & NEW 머쉬룸 샌드



뽕치킹

/BBQ



토시비프 샌드위치 컬렉션.

/썸브웨이



치폴레 쉬림프 피자.

/피자에땅

위치’와 ‘NEW 머쉬룸 샌드위치’에는 고단백·저열량 양송이를 더해 부드럽고 깊은 맛을 구현했다. 썸브웨이 관계자는 “프리미엄 부위를 사용한 토시비프 샌드위치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네 가지 치즈(고다, 체다, 블루, 파마산)와 요거트, 유크림 분말을 조합한 프리미엄 시즈닝 치킨 ‘뽕치킹’을 선보였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치즈 풍미가 특징으로, 고객들의 프리미엄 치킨 수요에 대응했다.

뽕치킹은 출시 이후 평일 평균 1만 마리, 주말 평균 2만 마리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BBQ앱 주문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 뽕치킹은 잘파세대(Zalpa,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와 여성 고객층이 높게 나타났다.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은 ‘치폴레 쉬림프 피자’와 ‘홍게 새우 크림파스타’, ‘홍

게 크림리조토’ 등 프리미엄 씨푸드 컬렉션을 내놓았다. 스모키하면서 달콤한 K-치폴레 소스와 해산물의 조합으로 이국적인 맛을 구현했으며, 홍게와 새우를 활용한 사이드 메뉴로 고급화를 강화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이마트24가 신세계푸드와 손잡고 ‘더블비프치즈버거’와 ‘블랙페퍼더블버거’ 등 프리미엄 버거 2종을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원육 함량 69% 이상의 고급 패티를 사용하고, 특제 바비큐소스와 블랙페퍼소스로 풍미를 강화했다. 특히 패티와 야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용기를 적용해 신선함과 푸짐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요 식품 브랜드들은 고급 원재료와 차별화된 조리법을 앞세워 프리미엄 메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한 끼 식사’에서도 미식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업계의 제품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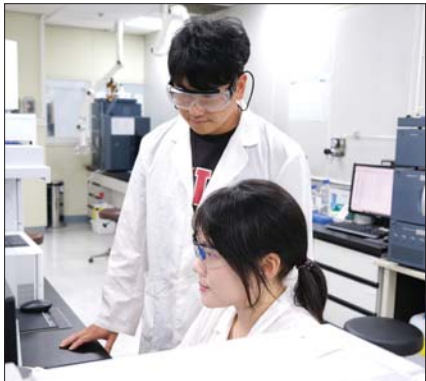
애경케미칼, 글로벌 계면활성제 시장 공략

독자기술 기반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화장품·생활용품 등 사업 범위 확장

애경케미칼이 독자 기술력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영역인 계면활성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29일 애경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화학부문 사업회사 애경케미칼이 범용 제품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친환경 저자극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수익성 높은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케미칼이 개발하고 있는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경우, 피부 친화적인 특성으로 2025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 계면활성제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용품, 민감성 피부용 제품, 고급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거품 생성량이 많고 타 계면활성제와의 상용성이 우수하다.



애경케미칼 대전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애경그룹

아미노산계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역시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성 피부나 어린이 제품에 적합하다. 액상뿐 아니라 고체나 가루 형태로 제작 가능해 보관과 운송이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방부제 사용도 적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헤어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모발 컨디셔닝, 정전기 방지, 영김 감소, 향균 보조,

부드러운 사용감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애경케미칼은 계면활성제 사업 범위를 넓힘으로써 화장품, 생활용품, 농업, 의약품 보조제 등 전반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 유래 원료와 바이오 기반 소재를 바탕으로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에도 역량을 쏟는다. 환경을 고려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폐기물 저감, 용제 미사용, 공정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제품 중 친환경 제품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애경케미칼은 이러한 시장 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도 확장할 계획이다.

애경케미칼 측은 “글로벌 거점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한양행 공식 온라인몰 재단장

유한양행이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를 재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한양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들장터’는 선물세트부터 건강기능식품, 캡슐세제, 퍼스널케어 제품까지 각종 생활용품과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검색창 접근성 개선, 제품 카테고리 체계화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 최적화 제품을 추천한다. 실시간으로 인기 상품을 안내하고 장바구니에서 무료 배송 조건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CKD-704’ 유럽 임상 추진 (건선치료제 바이오시밀러)

EMA 1상 승인… 연내 투약 목표

종근당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건선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KD-704’의 유럽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종근당은 유럽에서 건성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CKD-704와 오리지널 품목인 스카이라치와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산키주맙은 면역 매개물질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체(subunit)를 차단하여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

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유럽에서 진행될 CKD-704의 임상 1상은 연내 투약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인 스카이라치와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여 전세계 염증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KD-706’의 유럽 임상 1상 신청을 진행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뷰티업계, APEC 현장 프로그램 운영 세계 정상에 ‘한국 아름다움’ 알린다

LG생활건강 ‘더후’ 라운지 마련
아모레퍼시픽 혁신 뷰티제품 소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 동안 경주에서 K뷰티 알리기에 나선다.

LG생활건강은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를 경험하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는 오는 3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 CEO들의 배우자를 비롯한 VIP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신라 시대 극진한 예우로 국민을 맞이하던 공간인 ‘동궁과 월지’를 주제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더후가 계승하고 있는 한국 궁중 문화를 적극 알린다. 궁중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브랜드 철학과 LG생활건강만의 피부 장수연구성과를 집약한 ‘환유고’도 함께 체험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수곡(守谷) 손대현 장인이 우리나라 궁중 예절을 대표하는 옷칠 공예 시연을 선보인다.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나전칠기를 공유해 VIP들은 전통 자개 장식을 스스로 꾸며보고 전통 노리개도 만든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한국 궁중 문화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즐길거리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후의 헤리티지와 차별적 가치가 풍성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혁신을 주제로 하는 K뷰티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 CEO 및 배우자들과 한국 고유의 뷰티 혁신을 공유한다. K뷰티 파빌리온은 아모레퍼시픽이 갖춘 연구력, 차별화된 성분과 기술, 브랜드 전통과 역사 등 K뷰티 전반을 소개한다.

설화수는 60년 인삼 과학의 힘을 담은



LG생활건강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를 운영한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혁신을 주제로 'K뷰티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설화수 부스 전경. /아모레퍼시픽

홀리스틱 뷰티를 소개하며 인삼 입욕제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클래스를 마련했다. 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부톤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커스텀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을 현장에서 즉석 제조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해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메이크업 쇼도 열린다. 라네즈, 아이오펜, 에스트라, 코스알엑스,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 등도 함께 선보여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APEC CEO 서밋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로 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K뷰티 연구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선보이며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삶도 사랑도, 쇼처럼 계속된다!

쥬크박스 뮤지컬

쇼 메스트 고 온

in 대학로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30일(일) 대학로 업스테이지극장

홍서준 황인보 고혜미 이유선 윤토왕 손난희 이주훈 김도후 강동석 김상원 박수현 서유인 김혜상 김희선

총괄프로듀서 최대성 | 작/연출 최대성 | 드라마트루그 김동미 | 음악감독 최은지 | 음악작곡 이정현 | 안무감독 이규도
무대디자인 박단추 | 음향감독 박미리 | 조명감독 곽두한 | 영상디자인 유정임 | 무대제작 수 무대미술 | 조연출 이시훈 | 연출보조 우정인

제작 극단 쇼고(showgo) 극단 신명 | 기획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 NOLETICKET | 문의 02-764-9102

※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롯데GRS-서울시, 페비날 분리배출 활성화 나서

롯데GRS는 서울특별시와 ‘페비날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신청사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GRS 경영전략 부문 이원택 상무(맨 오른쪽)와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여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동서식품, 다문화·한부모 가정과 김장 봉사활동

동서식품은 전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한부모 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동서식품 직원들은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동서식품



태광그룹 ‘큰희망’, 중증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의 장애인표준사업장 큰희망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큰희망 사업장에서 ‘예비초년생 중증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제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에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중증장애인 4명이 참여했다.

/태광그룹



쿠팡 CLS, 경남도 투자 우수기업 선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경남 김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투자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진행됐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쿠팡 CLS 박형주 상무(왼쪽)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쿠팡CLS



BNK부산은행, 지역사회에 임직원 재능기부

BNK부산은행은 임직원의 전문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BNK부산은행 재능기부봉사대는 임직원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고, 개별 직원의 전문성과 재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출범했다.

/BNK부산은행

삼성전자, 국내외 소비자 만족도 최다품목 1위 차지

총 10개 생활가전 중 9개 품목 1위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최고점 받아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한국표준협회(KSA)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KS-Q EI)’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주요 가전들이 최고점을 받았고,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올인원 세탁건조기 부문에서도 ‘비스포크 AI 콤보’가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국능률협회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건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5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도 총 8개 생활가전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조사대상 기업 중 최다 1위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는 16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에어컨은 13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KM AC은 삼성전자가 AI 기능,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더 기아 PV5’ 세계 최장주행 신기록

최대 적재중량 실은 상태에서

1회 충전으로 693.38km 주행

기아의 첫 전동화 전용 목적기반 차량(PBV) ‘더 기아 PV5’ 카고 모델이 세계 최장 주행 신기록을 작성했다.

기아는 PV5 카고가 최대 적재 중량을 실은 상태에서 1회 충전으로 693.38km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행으로 PV5 카고는 전기 경상용차 부문에서 세계 최장 주행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됐다.

71.2kWh 배터리를 탑재한 PV5 카고 4도어 모델은 최대 적재 중량 665kg(유럽 모델 기준)을 모두 싣고,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부 공도에서 주행을 진행했다.

기아는 이번 기록을 통해 전기 경상용차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장 거리를 주행한 전기 경상용차 모델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한 기아 PV5 카고 모델.

/기아

기네스 인증 관계자는 “PV5 카고는 상용차로서 최대 적재 상태에서 달성한 주행거리로 기록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기네스 세계 기록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기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기아 PBV 차량이 콘셉트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도 탁월한 효율성과 실용성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하이트진로, 취약계층에 이동차량 지원

사회복지관 11곳 선정해 전달

하이트진로가 11번째 지속하고 있는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마무리했다.

하이트진로는 전달 서초사육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전국 10개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트진로가 11번째 지속하고 있다.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하이트진로 캠페인십’ 골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차량 지원 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대상

공모를 진행해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경차 10대와 승합차 1대 총 11대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차량을 포함하면 11년동안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총 91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소망원(충북 청주 소재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의 박영수 원장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병원진료 등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이트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이트진로 김인규대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매년 차량을 후원하고 있다”며 “이동의 불편이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두바이서 K-뷰티 경쟁력 알려

‘두바이 뷰티 월드’ 참가

애경산업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막을 올린 ‘두바이 뷰티 월드’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두바이 뷰티 월드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뷰티 및 웰니스 박람회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비롯해 이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약 164개 국가가 교류하는 행사다.

애경산업도 중동 및 서남아, 유럽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케어, 구강관리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신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 스테디셀러 제품 ‘에센스 팩트’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 지투웨니스, 색조 브랜드 루나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헤



지난 27일~29일(현지 시간)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뷰티 월드’ 현장 내 애경산업 부스 전경.

/애경산업

어 브랜드 케라시스, 바디 브랜드 립센트, 구강관리를 위한 2080 등도 함께 선보였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중동 지역은 뛰어난 소비력은 물론 K뷰티를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라며 “현지 맞춤 인증과 기술 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대상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소진공,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지원

‘금융의날 행사’서 위원장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은 최근 10년간 약 35조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7% 이상의 민간 금융 고금리 대출을 공단의 4.5%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타도록 지원하는 대한대출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공급하고 장애인·청년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다”며 “포용 금융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곁에서 든든한 금융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산업기반실장 김성열

◆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김미순 △가전제품심사과장 서태관

부음

▲ 정순자씨 별세, 허상희(동부건설 부회장)씨 빙모상 =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티장례문화원 특301호, 발인 31일 오전 10시, 장지 전라북도 임실 강진 선영. 063-274-4444.

2028 대입 로드맵 : 혼돈의 고1 선택과목

**지 상 범****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목 선택은 이제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자가 아닌 입시의 핵심 전략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필수 학점 외에 90학점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채워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주요 대학들은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추세다. 단순히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전공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대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진학 희망 대학별 권장 과목 확인은 기본이다.

전공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반·진로 선택 과목의 충실한 이수는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자연계열 학생은 특히 수학·과학에서 위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적분Ⅱ는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

의 기초로, 주요 대학들이 사실상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 기하도 공학계열 지원 시 수학적 깊이를 위해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은 미적분Ⅱ와 기하를 명시적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은 전공 따라 심화 이수가 필수다. 의예과·약학과 등 메디컬 계열은 미적분Ⅱ 이수과 함께 물리·화학의 일반 선택 과목 이수가 필요하며, 공학계열은 역학 중심 물리, 생명계열은 세포·물질대사 관련 생명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전자전기 계열은 인공지능 수학, 기술·정보 교과 등을 통해 전문성을 학생부에 나타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선택 자유가 큰 만큼, 전공 연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상경·사회과학 계열은 데이터 분석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률과 통계, 실용 통계 등 수학 활용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진로 선택에서 과학 이수는 필수는 아니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등을 활용해 이과 생과의 경쟁 부담을 줄이고 수학적 역량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 문제 탐구, 윤리 문제 탐구, 인공지능(AI) 윤리, 기후

변화 등 복합 이슈를 다룬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 전공과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는 절대평가 과목의 성취와 학업 과정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자, 융합 사고력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국어·영어 진로 선택 과목 이수도 기초 소양 확보를 위해 빠질 수 없다.

학점 미달 시 보충지도 등의 유연성이 있지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 전략이 될 수 없다. 대학들은 개설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공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규 이수를 통한 성취가 최우선이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로 처리되므로, 성적 부담 없이 세특 중심의 탐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부족한 전문 과목을 보완하거나 흥미 분야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다.

결국, 고1 학생은 일반·진로 선택으로 필수 역량을 확보하고, 융합 선택으로 탐구 심화를 증명해야 한다. 과목 선택 실패는 곧 대입 실패로 이어진다. 치밀한 로드맵만이 불확실한 입시 환경을 돌파하는 길이다.

/JBS진로진학연구소장

실손24, ‘빨리’ 보다 ‘명확히’

**김 지 수****김 주 형**
(금융부)

실손 청구 전산화 ‘실손24’ 2단계가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병원 청구 방문·서류 발급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니 ‘원터치 편의’만 보면 혁신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버튼은 생겼지만, 회로는 아직 험잡다.

10월 21일 기준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1만920곳으로 전체의 10.4%에 그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는 54.8%로 절반을 넘겼지만 2단계의 핵심인 의원·약국은 6.9%(6630곳)다. ‘확대 시행’과 ‘낮은 참여’가 동시에 존재한다.

제도의 취지와 한계는 법 문구에 담겨

있다.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 시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고 정한다. 강제 처벌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을 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계발원이 맡는다. 표준과 운영 주체는 정해졌지만 현장 적용의 마찰면을 줄이는 설계는 아직 진행형이다.

의료계의 반론은 ‘편의’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 EMR(전자의료기록) 연동·유지보수 비용, 업무 부담 등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비협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선의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 남은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전산화는 신뢰를 갉아먹는 규범이 될 수 있다.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다. 요양기관·EMR업체·보

험사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 API와 인증·접근권 관리(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는 규칙으로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용 편의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연계로 높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정보보호와 분쟁 예방 원칙을 전제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빨리’보다 ‘명확히’가 먼저다.

실손 전산화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힘겨루기가 아니다. 소비자 편의, 진료 현장의 안전, 데이터 주권, 비용의 공정 분담이 동시에 맞물려야 굴러간다.

당국은 11월부터 네이버·토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실손24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버튼은 이미 눌렀다. 이제는 회로의 신뢰를 설계할 차례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4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0년생** 동료 간에 서로 양보를. **72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84년생** 가족이 흠아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37년생 약속이 아침부터 발생. **49년생**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밟다. **61년생** 진로 수정은 신중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73년생** 백일작정기도를 신창. **85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38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지타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50년생** 노력은 복덕의 근간. **62년생**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74년생**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주의. **86년생**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39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 결실. **51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63년생** 이기적인 마음을 접도록. **75년생** 젊은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87년생** 돌아가신 분을 위한 산소에 가서는 경건하도록.



40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52년생** 외출 때 차량 점검. **64년생**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76년생** 시기심을 버리면 집에 복이 온다. **88년생** 발전이 느리니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이다.



41년생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53년생**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65년생**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77년생** 낮에 음주가 웬 말인가. **89년생** 전해오는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42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54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66년생**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78년생**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오니 평소 겸손 미덕을. **90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도록.



4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55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67년생**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온 마음이 날아갈 듯 낙낙하다. **79년생**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 수가 있을 것. **9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44년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물려올 때도 있다. **56년생**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68년생** 이사 준비로 바쁘네 이웃 사촌이 방문하여 복장. **80년생** 스트레스 비만에 주의하자. **92년생** 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45년생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57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9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81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3년생** 많은 시간의 인생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46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58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7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82년생** 지금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94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보도록.



47년생 자식이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59년생**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1년생** 험한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3년생** 주변 좀 도둑을 조심히 해라. **95년생**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김상회의四季

운조루, 고택명당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운조루는 오랫동안 명당으로 불린 고택이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고택인 이 집은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종가이다.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유명해서 나들이객이 많이 방문하지만 명당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다. 풍수지리 이론이 잘 반영된 운조루의 터는 명당과 혈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볼 수 있는 곳이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산과 물 바람과 햇빛이 조화롭게 어울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을 지켜주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집이나 무덤을 지으면 후손이 번성하고 재물이 모인다. 명당의 핵심은 기가 머문다는 것이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숨결처럼 흐른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혈자리는 명당 안에서도 기운이 모이는 핵심 지점이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모여 힘을 내는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무덤을 쓸 때 혈자리를 잘 잡으면 기운이 퍼져나가 집안이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운조루는 이렇게 강한 혈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병풍 같은 산줄기가 운조루가 있는 마을을 감싸 안는 형상이고 앞 쪽으로는 맑은 섬진강 물줄기가 완만하게 흐른다. 뒤로는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이를 배산임수라고 부르는 데 가장 이상적인 집터 조건 중 하나이며 특별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터의 중심부에 혈자리가 있어 집 전체가 마치 기운의 중심에 앉아 있는 듯한 구조를 지녔다고 한다. 운조루는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를 감싸는 구조로 명당의 기운과 주변에 배운 공덕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도 좋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환경기술’ 동남아서 통했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2025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16개사를 파견해 2,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태국 방콕,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파견된 환경산업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기업 16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81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태국 방콕에서는 총 85건 상담을 통해 1,074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뒀고, 이 중 85건 512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83건의 상담을 통해 1,189만 달러의 수출상담성과를, 이 중 81건 583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이 수처리 설비, 폐기물 자원화 기술,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친환경 플라스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총 7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육군승진훈련장 테스트베드.

/포천시

포천시,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첨단 방위산업 중심 도시 도약

포천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확정하면서 ‘첨단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포천시는 지난 9월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해 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해 역량을 결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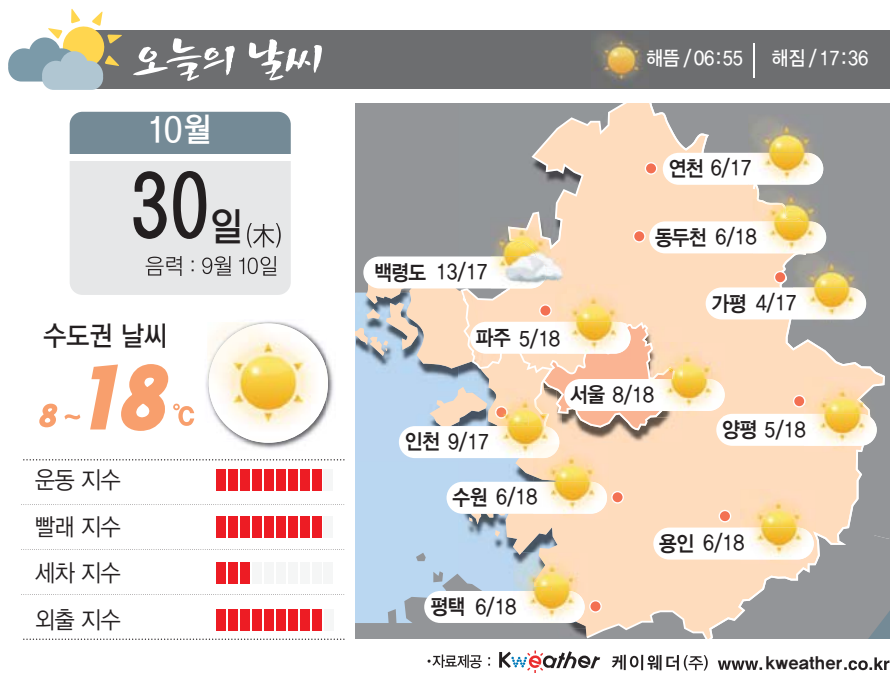
추진단 단장은 포천시장과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기술지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포천상공회의소가, 전략수립과 연구개발은 서울대 지능형무인이동체 연구센터와 파인브이티 전자전·보안연구소가 담당했다. 추진단은 단순히 센터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K-방산 G4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험·평가·인증·인재양성·기업 스케일업을 하나로 잇는 종합적 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이번에

유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2026년 3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거점으로 설치된다.

포천시는 이를 중심으로 AI 기반 민군 드론융합시험평가센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드론교육훈련센터를 함께 추진해 설계·개발·시험평가·인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영현포천시장은 “포천시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번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경기도와 포천이 첨단화로 변모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며,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인문은 간판, 자연은 전공·진로 달라진 선택 기준 ‘입시 온도차’

인문사, 수시 지원자 대상 설문조사
인문, 이름값·사회적 평가 강조
대학 간판이 선택 기준으로 작용

자연, 전공 적합성·진로전망 고려
실용 가치 중심으로 방향 전환

인문계열 수험생은 대학의 ‘이름값’을, 자연계열 수험생은 ‘전공 적합성’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가 중심의 인문계와 실용적 진로 중심의 자연계가 확연히 다른 지원 기준을 보인 셈이다.

29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복수 응답)로 ▲‘학과·전공의 적합성’(60.6%)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대학네임밸류’(46.9%) ▲‘취업률 및 졸업 후 진로 전망’(36.2%)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보다 대학의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문계열의 51.6%가 대학의 네임밸류를 중요하게 꼽은 반면, 자연계열은 43.4%에



2026 수시, 정시 대학 선택전략 특집설명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강남종로학원 대치에서 수험생들 둔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그쳤다.

반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공의 적합성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을 더 중시했다.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본 비율은 자연계열이 62.8%로 인문계열의 58.1%보다 높았고, 졸업 후 진로 전망 역시 자연계열이 39.4%로 인문계열(32.4%)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인문계는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브랜드 가치’를, 자연계는 전공의 전문성과 진로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 같은 차이는 향후 정시 지원에서 학과별 경쟁률과 교차지원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단순히 유명 대학을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학사는 향후 ‘AI 활용’, ‘정보 격차’, ‘사교육 의존도’, ‘성적대별 지원 전략’ 등을 추가 분석해 ‘2026 수시 지원 인사이트 리포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년 새 ‘외국인 전담학과’ 3배↑

수도권 대학 절반 이상 집중
언어능력 충족률 40% 그쳐
교육 질 저하·신뢰도 우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2년 새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집중과 유학생의 언어능력 미흡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이 운영하는 학과는 139개(41.5%)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대학 정원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 제도를 학사 유연화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실제 2024학년도 외국인 전담학과는 107개였으나 2025학년도 238개, 2026학년도 335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43개(2024년)에서 115개(2026년)로 늘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024) ▲40.1%(2025) ▲41.5%(2026)로 유지되며 집중 양상이 지속됐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총 4518명이며, 이 중 수도권 입학생이 2235명(49.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은 전국 평균 42.1%, 수도권 대학은 39.1%로 더 낮았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에 비해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언어 역량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고려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이 16개 외국인 전담학과를 운영 중이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가운데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5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AI와 예술’의 만남

미래형 청사진 제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예술이 일상이 되는 학교’를 비전으로 하는 ‘2026~2030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AI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래역량 기반 예술교육 강화 ▲학생 정서회복 지원 ▲지역 예술 생태계 확산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으며,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급별 특성화된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서울형 창의융합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반 예술학습 지원 체계를 개발해 학생 맞춤형 실습과 피드백이 가능한 ‘예술형 AI 튜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 학습을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CSIS 보고서 “지난달 韓-中 해경과 조사선, 서해 15시간 대치·추격”
▲美日, 정상회담 이어 국방회담… 日방위비 증액 등 논의
/사진 뉴시스

▲빌 게이츠 “기후 위기보다 말라리아 퇴치가 시급… UN, 전략 전환해야”
▲日다카이치, ‘아베’ 내세워 트럼프와 밀착… “무난한 미일 외교 데뷔 완수”

▲하마스, 인질 시신 2구 추가 수습 주장… “당장 인계는 안 해”
▲연준, 섀트다운 속 금리 인하하나… “인플레이션 불안” 우려



윤동한 콜마회장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 불발
L1



‘도넛’ 대중화 주도… ‘프리미엄·트렌드’ 새 도약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던킨

1994년 서울 이태원에 첫 매장을 연 던킨은 ‘도넛’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표적인 도넛 브랜드다. SPC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들여온 이후 지난 31년동안 독자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도넛 브랜드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콘셉트의 원더스를 론칭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원더스는 던킨만의 수제 도넛을 맛볼 수 있는 특화 매장으로, 세련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메뉴로 특색 있는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당일 판매·폐기… 소비자 신뢰 확보
국내 최대 도넛 브랜드 자리매김

◆ ‘두바이 초콜릿’ 던킨만의 도넛으로 재탄생

젊은 세대를 열광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지난해 10월 출시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이다. ‘두바이 초콜릿’은 지난 2023년 말 해외 SNS를 통해 처음 소개되면서 전 세계 MZ세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던킨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은 구운 카다이프를 섞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크림을 가득 채운 필드 도넛으로 초콜릿 코팅과 피스타치오 토핑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6개 직영점에서 한정적으로 출시한 이 도넛은 젊은 소비자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연일 오픈런 행렬이 이어진 ‘던킨 원더스 강남점’에서는 일 판매량이 600여 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매 매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후 출시 4주 만인 지난해 10월 말에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 점포를 포함한 가맹 점포를 포함한 전국 매장으로 판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

매처를 빠르게 확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 론칭 1주년을 맞은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은 이달 19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126만 개 기록을 갈아치우며 자체 기록을 지속 경신 중이다.

던킨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K 두바이st(스타일) 흑임자 도넛을 신규 출시해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은 고소한 피스타치오 크림과 바삭한 카다이프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도넛 위에 흑임자 페이스트 코팅을 더해 더욱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던킨은 11월 3일까지 ‘두바이 생일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피액 물렛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내달 7일까지 던킨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구매한 인증사진을 피드 또는 스

토리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150만원 금액 상당의 항공권 기프트카드를 선물한다.

◆던킨 원더스 “놀라운 맛을 보여주겠다”

던킨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의 성공 배경에는 지난해 론칭한 던킨의 ‘원더스(Wonders)’가 주효했다. 던킨은 지난해 9월 국내 출범 30주년을 맞아 신규 프리미엄 콘셉트 ‘원더스’를 공개하며 기존 던킨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던킨은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원더넛 ▲32레이어즈 ▲퍼프 등 ‘원더스 도넛’을 선보였다. ‘원더넛’은 묵직하고 볼드한 비주얼의 아메리칸 스타일 콘셉트의 도넛으로, 파운드케이크처럼 부드럽고 머핀처럼 촉촉한 식감의 케이크 도넛이다. ‘32레이어즈’는 32겹의 파이 생지를 튀겨 켜켜이 층을 이룬 파이 도넛으로 바삭한 식감을 즐

길 수 있다. SPC만의 발효과학 기술력을 사용해 담백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도넛에 필링을 가득 채운 생도넛 스타일의 ‘퍼프’도 던킨 원더스 매장에서 맛볼 수 있는 제품이다.

던킨은 ‘원더스’ 출범과 함께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스토어 ‘던킨 원더스 청담’을 지난해 9월 오픈했다. 12월에는 ‘던킨 라이브 강남’ 매장을 ‘던킨 원더스 강남’으로 리뉴얼 오픈해 더 많은 소비자가 ‘원더스’만의 차별화된 매장 경험과 시그니처 메뉴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맛에 대한 연구와 공급망 관리

국내 던킨은 미국 본사와 다르게 도넛 진열대를 계산대 밖으로 내놔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고르도록 해, 고객들이 신제품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판매 전략은 국내 고객에게 호응을 얻으며 국내 던킨만의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당일 판매, 당일 폐기 원칙으로 갓 만든 도넛을 선보이는 등 맛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프리미엄 콘셉트 ‘원더스’ 론칭 두바이 초콜릿 등 새로운 맛 연구 전국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구축

도넛이 낱설던 90년대부터 도넛의 대중화를 이끈 던킨은 지금도 제2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 트렌드와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던킨의 공급망 관리도 강점이다. ‘원더스’에서 시작된 수제 스타일 도넛을 부산, 수도권, 대전, 충청 지역 일부 가맹점까지 확산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던킨이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전국 각지로 수제 스타일 도넛을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이제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처럼 점포에서 제조하는 도넛 제품군 또한 확대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던킨 원더스 청담 매장 전경.



던킨 원더스 강남 매장 내부.

/던킨

▲ 대한핸드볼협회, 내달 1일 제4회 ‘핸볼 페스티벌’ 개최
▲ 한국 수영,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은 1개·동 2개 추가 획득



▲ 배우연맹, 유니폼 착용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김관우에 제재금
▲ “LG-한화 한국시리즈 입장권 최고 999만원에 거래 확인”
(사진 뉴시스)

▲ 상무 전역 후 울산 합류한 이동경 “K리그1 잔류가 우선 목표”
▲ MLB ‘쿠바 특급’ 채프먼 “양키스에 돌아가는 니 은퇴하겠다”

SAMSUNG

Galaxy XR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Powered by
Android XR